

전기가 밀양에서 도시로 오기까지 일어나는 일들

(에너지부정의에 대한 저항과 페미니즘)

김 영 희 (연세대 국문과 교수)

들어가며: 페미니즘의 지향

- 페미니즘의 지향 가치: 지속, 공존, 연대
- 당대 저항 운동의 지형과 페미니즘: 반군사주의, 반전 평화, 기후정의와 에너지정의 등
- 오키나와 헤코노 미군 기지 이전 반대 시위의 장면들
- 기후위기와 제주 해녀의 삶: 제주 곳 '갯씨심'
- 밀양 탈송전탑 탈핵 운동과 '밀양 할매'

들어가며: 저항 운동 기록과 역사, 그리고 젠더

- 저항 운동의 현장, 그리고 저항 운동의 기록과 역사화에서 주변부화되는 것은 누구인가
- 제주 4.3과 조천 북촌 마을의 고완순씨
- 광주 5.18 항쟁과 여성 노동자들의 운동
- 1970년대 이후 노동 운동의 기록과 '여성' 노동자의 장소

들어가며: 구술 서사와 젠더

- 구술 서사의 연행과 전승 & 젠더 주체의 형성
- 젠더화 시나리오를 매개하는 다양한 기제들
- 서사 운동과 구술 인터뷰
- 구술 인터뷰의 관점과 방법
- 구술 서사와 글쓰기

들어가며: 탈탈낭독회를 시작하며

- 서사 운동과 청취의 연대
- <송전탑 뽑아줄티 소나무야 자라거라>(교육공동체벗) 작업과 그림 전시회
- 목소리의 연대와 낭독회
- 밀양과의 인연
- 책을 시작한 계기

1. 탈탈낭독회에서 만난 목소리

- <전기, 밀양 → 서울>을 들고 60여 차례 전국을 돌며 진행된 탈송전탑 탈핵 낭독회: 밀양 주민과 연대자들의 손을 잡고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남.
- 싸움의 현장이 아닌 곳이 없다는 발견
- 어떤 싸움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연대의 감각
- 밀양의 고통이 밀양만의 것이 아니듯 밀양의 서사도 밀양만의 것이 아니고 밀양 이후의 운동도 밀양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

1. 탈탈낭독회에서 만난 목소리

- 기후위기가 다가오는 속도,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재앙의 규모와 정도,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의 수준이 각자가 서 있는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깨달음
- 전기에너지 생산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각 가정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나가면 해결되는 문제인가라는 질문
- 에너지 문제가 어떤 교차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찬찬히 살펴봐야겠다는 결심

1. 탈탈낭독회에서 만난 목소리

- 마을 사람들 몰래 낭독회에 참여한 제주 삼촌들: 풍력 발전 시설 건설 반대
- 사무실 안 CCTV로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월성 인근 경주 나아리 마을 이장
- 식민지 시기 세워진 시멘트 공장 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화력발전에 필요한 자원 이동을 위해 바다 위에 대규모 콘크리트 시설을 건설한 삼척
- 10년 전에 765kV 송전탑이 세워진 마을에 다시 송전탑이 세워진 홍천



이야기 하나:

“서울 가이 전신에 뽀까뽀쩍하이
아, 여 이래 전기 보낼라꼬
우리 집 앞에 송전탑 세운 기구나.”

- <전기, 밀양 → 서울> 가운데에서

2. 식민지 '시골'

- 한국 사회에서 비도시지역은 오랜 역사적 기간 동안 어떻게 수탈 대상이 되어 왔는가
- 전기수급률의 수치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폭력
- 댐 건설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다시 송전탑이 들어설 때 - 삶의 장소를 지속적으로 박탈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
- 송전탑이 들어선 곳에 또 송전탑이 들어서고 LNG 시설이 들어선 곳에 풍력발전기가 추가로 건설되는 마을들

2. 식민지 '시골'

- 식민지화를 실현해온 구조와 조건을 들여다보아야 할 때
- 정치적 구조, 일상의 삶, 경제적 조건 등
- 송전탑 건설 반대의 입장에 섰던 마을 사람들이 감당해야 했던 것은 몇 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'사회적 고립과 배제'였다는 사실이 중요함. → 순식간에 '난민화'되는 삶



이야기 둘:

“나라에서 하는 일 우리가 막아가
되는교? 나라에서 하는 일 막다가
우예 되는지 못 봤는교?”

- 밀양 주민 구술 자료 가운데에서

3. 국가폭력의 기억

- 도미야마 이치로: “폭력의 공포를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은 폭력으로 인해 죽은 자의 시체 옆에 있던 사람”
- 제주 4.3, 여순, 보도연맹, 빨치산 토벌 작전, 민간인 학살, 치적 구조, 일상의 삶, 경제적 조건 등
- 국토 건설 사업, 대규모 토건 사업에 동원된 부역, 강제 동원된 피임 시술, 빨갱이라는 호명의 효과 등

3. 국가폭력의 기억

- 국가폭력의 또다른 장면으로 등록된 ‘밀양 6.11 행정대집행’
- 국가폭력의 전시가 어떤 효과를 만드는가
- ‘밀양을 보라’는 한국전력 직원의 말
- 그러나 “국가폭력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만만히 보지 말라”는 외침. 살아남아 기억하고 연대하는 자의 힘.



이야기 셋:

“얼른 죽어배지 와 아직 살아있는교?
여 막 다 확 불싸질러뿌까?”

- 밀양 주민 구술 자료 가운데에서

4. 존엄과 자존을 향한 공격

- 폭력의 속성에 대한 어빙 고프만의 성찰
- 밀양과 또다른 밀양에서 자행된 폭력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은 대상이 무엇인가
- ‘밀양 할매’를 향한 폭력들은 모두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자존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
- 온갖 ‘돈지랄’, 법률적 공격, 언론 플레이, CCTV, 이장 선거 개입 등

4. 존엄과 자존을 향한 공격

- 마을공동체가 자부심을 갖고 이어오던 전통과 역사를 무너뜨리는 폭력
- 평생을 농민으로 살아온 자의 자존과 긍지를 무너뜨리는 공격
- 오랜 시간 일구어온 마을 자치의 역사와 전통, 마을 의례와 민속을 포함하는 사회적, 문화적 자산을 무너뜨리는 일들
-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

4. 존엄과 자존을 향한 공격

- 폭력의 시작점을 은폐한 채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마을 사람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오랜 시간 신뢰하고 의지해온 관계를 무너뜨리는 폭력
- 한국전력의 매뉴얼: 오랜 시간 반복된 폭력. 지속되며 강화되어온 것.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는 폭력.
- 국가폭력, 마을공동체 해체라는 표현도 이 폭력을 표현하기에는 그저 '우아한 말'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민의 말



이야기 넷:

“책을 읽으면서 너무 미안하고
죄송해서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.
내가 쓰는 전기가 여기까지 오는
동안 이런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이
있었구나 하고.”

- 탈탈낭독회 참여자의 말

5. 가려져 있던 우리 사이의 '연결'이 눈 앞에 드러나는 순간

- 자본주의의 폭력은 우리 사이의 연결을 가리고 덮어 우리가 모두 낱알으로 끊어진 존재처럼 보이게 만든다. 그러나 우리 사이에 연결된 끈이 갑자기 눈 앞에 '확'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.
- “세상의 모든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‘비도시’ 지역에 있다.”(-<전기없이 우아하게> 가운데에서)

5. 가려져 있던 우리 사이의 '연결'이 눈 앞에 드러나는 순간

-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지역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
- 후쿠시마 원전 지역을 청소하는 노동자들
-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제주 앞바다로 흘러드는 시간
- 산불 뉴스에 나온 방재 전문가의 말
- 고속도로와 국도 주변을 가득 메운 송전탑들
- 한국전력 발전 기업의 하청 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김용균 씨와 김충현 씨

6.부정의한 폭력을 포장한 껌데기들

- 폭염의 날씨에 생명이 위태로운 저소득층에게 값싼 전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
- AI 시대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오지 않을 수 없다는 말
-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원전을 계속 만들고 해외로도 수출해야 한다는 말

6.부정의한 폭력을 포장한 껍데기들

- 원자력발전이 싸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말
- 태양열,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확대하면 에너지정의 실현할 수 있다는 말
- 원자력발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말
-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송전탑을 세우고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말

7.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

- 국가폭력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그 권한과 영향력 또한 막강함.
- 구조화된 폭력이며 지속되는 폭력임.
- 6.11 행정대집행과 같은 물리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기에 밀양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은 2014년 6월 11일로 종료되지 않았음.

7.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

- 기차역, 지하철역에서 재생되는 원자력발전을 홍보하는 영상
- 모든 주민의 합의를 거쳐 송전탑 건설을 확정했다는 언론의 보도
- 만 번의 만남이 만 번의 강요였다면 만 번의 합의는 만 번의 폭력임.

7.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

- 합의와 동의라는 외피: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않을 때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울 때
- 그 절차를 만들고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질문해야 함.
- 그 절차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이며 그 권한을 배분하는 자, 절차적 과정에 참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배분하는 자가 누구인가 질문해야 함.

7.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

- ‘우리는 시민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신뢰하며 이 역량에 기대어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’는 말의 허구
-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‘공론화위원회’의 기억
- 누가 공론화위원회에 초대되었고 누가 전문가로 인정받았으며 누가 당사자로 승인되었는가
- 누가 발언권을 가졌으며 누구의 발언이 더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는가

7.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

- 이 모든 권한과 배치를 결정한 권력은 어디에서 나왔는가
- 누가 당사자로 호명 받았으며 누가 처음부터 배제되었는가
- 누구나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가
- 누가 이 기회와 권한을 결정했는가

7.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

- 밀양에서 주민들의 동의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었는가
- 애초에 정보는 어떻게 제공되었는가
- 밀양의 주민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는가
- 주민들의 대의를 수행해야 할 사람들은 어떠했는가

7.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

- 밀양 주민들 개개인의 정보를 알고 있던 한국전력 직원들은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
- 한국전력 직원들과 나란히 마을로 들어온 밀양시청 공무원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왔는가
- 마을 단위 보상금을 횡령하거나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
- 그 모든 재판의 판사와 검사들은 밀양에서의 폭력을 어떻게 판단했는가

밀양의 싸움은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

- 따뜻한 환대와 지속된 연대
- 함께 나누어 먹은 밥
- 농성천막, 즐거운 나의 집
- 식사슬을 주우며
- 김밥을 주문하던 전화
- 시즌2의 운동을 선언하던 날
- 청도 사람들을 우정으로 맞아준 밀양 사람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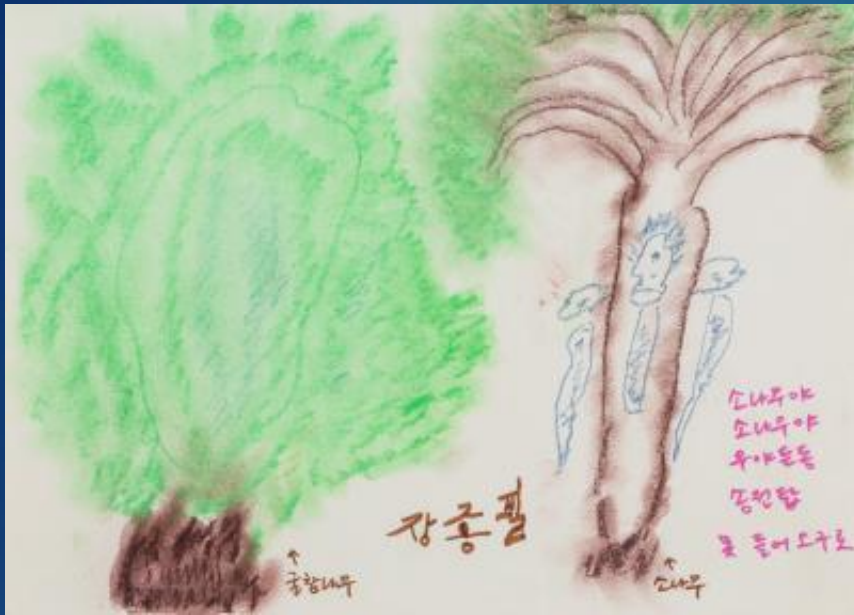
밀양의 싸움은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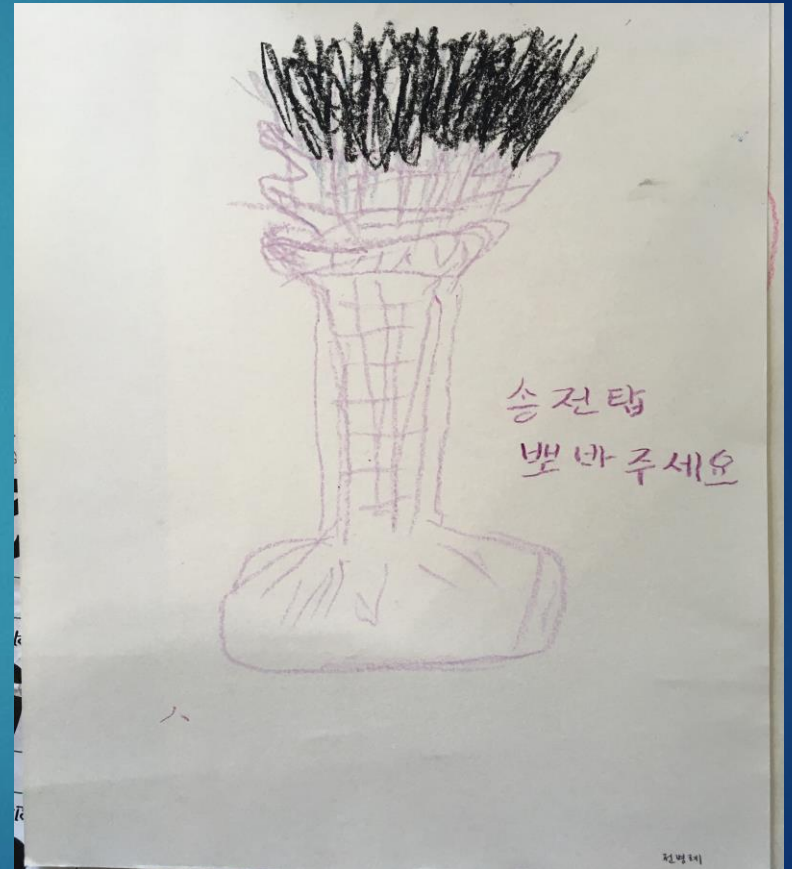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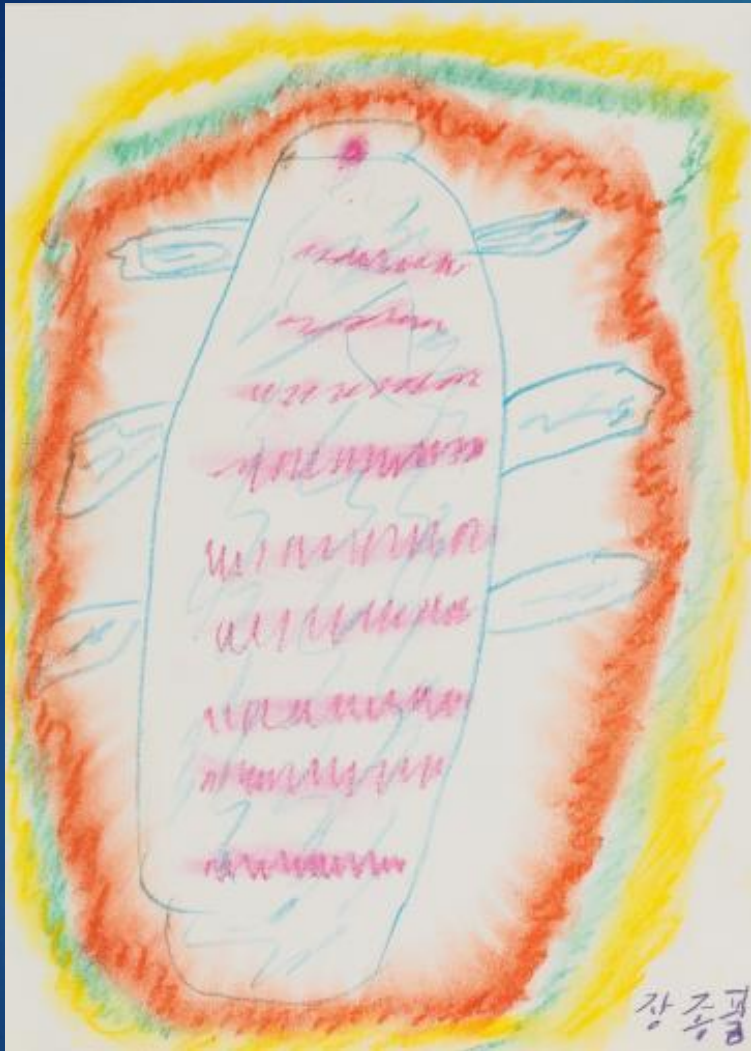
-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사람들
- 동원된 싸움이 아닌 '나의 싸움'
-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
- 주민이 이끌어가는 싸움
- 연대자가 활동가로
- 사람들은 왜 지금까지 밀양으로 모여드는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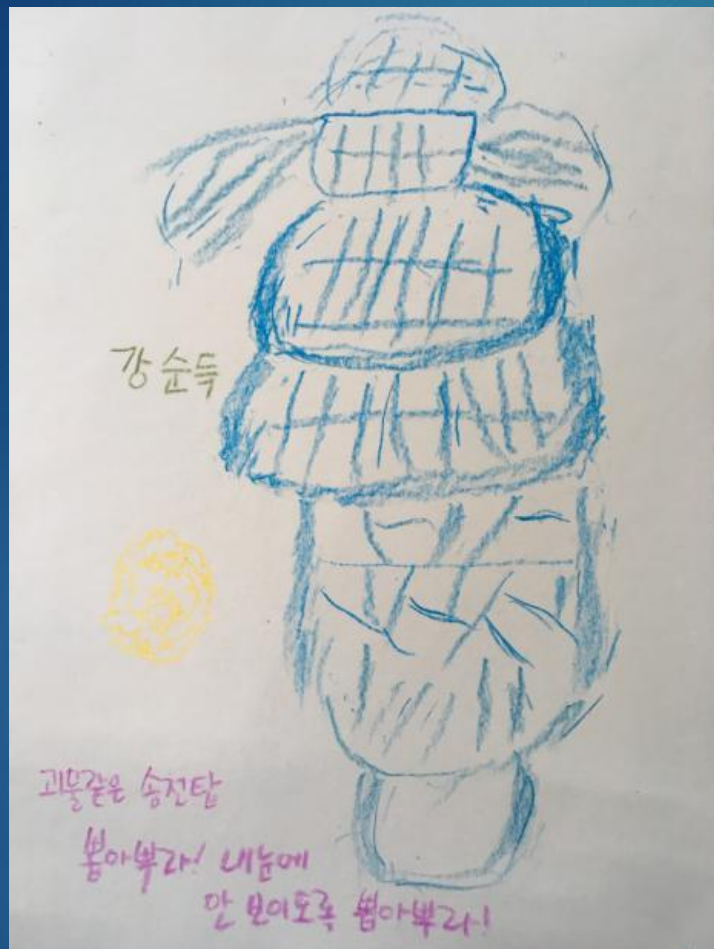
‘밀양 할매’는 누구인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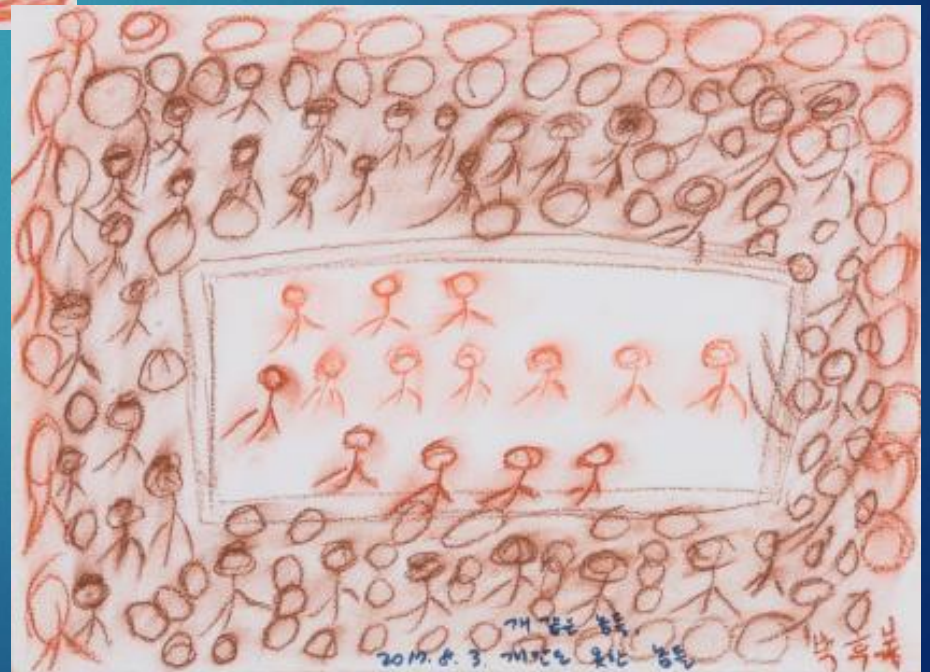
- 싸움의 끝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
- “느그가 있잖아. 그라이 지는 싸움도 아니지.”
- 송주법 보상금조차 받지 않겠다는 사람들
- 탈송전탑 탈핵 운동가
- 생존자이자 연대자,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의 주인공들















나오며: 공론화 트라우마

- 메가 프로젝트와 데이터 산업: '利'와 '義'를 둘러싼 맹자의 질문
- 에너지정의와 기후정의 운동의 대응
- 데이터 구워 먹고 삶아 먹으면서 사실 겁니까라는 질문
- 공론화의 기억: 사회적 담론장의 지형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살펴보는 성찰의 필요성



답는 질문:

기억은 어떻게 저항이 되는가

청취는 어떻게 연대가 되는가

연대는 어떻게 미래가 되는가

지금까지 함께 듣고
마음을 나눠 주셔서
감사합니다.